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분기별로 정리해서
*Brief*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FAQ
- 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The inclusion-driven boardroom:
Incorporating inclusion to help realize the benefits of diversity

포용성을 추구하는 이사회: 포용성을 통해 다양성의 이점을 얻는 방법

- 본 보고서는 이사회 구성원과 리더들이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다양성을 지닌 이사회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려사항과 전략을 제공함
 - 이사회 포용성 향상을 위한 조치
 - '포용성'에 대한 공유된 정의를 명확화 한 후, 그 정의를 이사회 행동과 프로세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결정함
 - 이사회 운영 및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사회 포용성에 대한 감독 책임을 어디에 둘지 조기에 결정하여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함
 - 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원활하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함으로써 이사들의 기여를 극대화함
 - 이사회 승계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활용해 토큰주의*를 방지하고, 이사회 회의와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이사를 선택함
- *소수자를 대표로 뽑아 구색을 갖추는 행위
-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사회 리더 직책을 준비하고 고려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책임측정지표를 설정하여 이사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규제하고 행동, 신체 언어 및 대화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포용적인 이사회 구성원의 특징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선언 (Commitment)	• 포용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조직 전체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선언
용기 (Courage)	•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려는 용감하고 단호한 자세
편향에 대한 인지 (Cognizance of bias)	• 개인적인 편향과 맹점을 자각하고 편향의 영향을 완화
호기심 (Curiosity)	• 열린 사고방식으로 회의에 임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의지
문화 지능 (Cultural intelligence)	• 차이점을 강점으로 받아들이고 공감적인 시각으로 결정
협업 (Collaboration)	• 모든 이사와 협력하고 다양한 집단의 생각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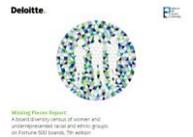
2023년 6월, Missing Pieces Report:

A board diversity census of women and underrepresented racial and ethnic groups on Fortune 500 boards (7th edition)

Fortune 500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여성 및 소수인종·민족 집단)

- Alliance for Board Diversity(ABD)는 기업 이사회 내에서 소외되는 소수인종·민족 집단의 여성 및 개인의 대표성 증대를 위해 다양성을 반영한 이사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 딜로이트 US와 ABD에서는 미국 경제지 Fortune이 선정한 100대 기업 및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함
- 2020년에 비해 더 다양화된 이사회 구성을 보이나 500대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은 100대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22 Fortune 100대 기업 이사회에 대한 주요 서베이 결과
 - 이사회에서 소수인종·민족 집단의 여성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과거 대비 증가함
 - 소수인종·민족 집단 출신 여성의 의석 비율은 2020년 6.6%에서 2022년 8.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일 집단 출신의 남성 의석 비율은 14%에서 14.9%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여성 또는 소수인종·민족 집단 출신 이사회 구성원이 50% 이상인 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함(11개사 → 33개사)
- 2022 Fortune 500대 기업 이사회에 대한 주요 서베이 결과
 - 이사회 의석 중 소수인종·민족 집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2.2%로, 2020년의 17.5%에 비해 개선됨
 -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은 여성과 소수인종·민족 집단 출신이 의석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4개사만이 이사회 내 백인 여성과 소수인종·민족 집단 출신 이사의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남
 - 위원회 리더십 측면에서는 백인 여성이 감사위원장의 26.5%를 차지하는 반면, 소수인종 여성의 비율은 감사위원장의 3%에 불과함
 - 5개 주요 산업 분류 내에서 소비자 산업의 성별 다양성이 가장 높았으며(32%),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이 소수인종·민족 집단 출신 개인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것(25%)으로 나타남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DeloitteESGNow - Using the COSO Framework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s Over Sustainability Reporting

지속가능성보고 내부통제(ICSR) 구축을 위한 COSO 프레임워크 활용

- ▶ '23년 3월 30일 COSO는 내부통제 통합 프레임워크 (이하 'COSO 프레임워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 및 정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정보에 COSO 5가지 구성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통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통제환경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지속가능성보고 내부통제(ICSR)를 가능하게 함 최고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는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함
리스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련 리스크를 기존 전사리스크관리(ERM)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COSO는 ESG 고려사항을 포함한 ERM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ESG 정보에 대한 강력한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목표 설정과 중요성 고려, 다기능 부문의 협업, 경영진 참여, 부정에 대한 동기 및 압력 평가 등으로 구성됨
통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은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증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통제 활동을 구축하여야 함
정보·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사소통 시스템은 조직 내외부의 의사결정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 정보·의사소통 시스템은 ESG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측정, 제시를 통해 내부 프로세스 소유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외부 사용자에게 관련성 있는 내용을 제공하며, 내부통제 및 보고 시스템을 지원함
모니터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활동은 내부통제 결함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조직은 이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므로써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 COSO 보고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지속가능성보고 내부통제(ICSR)를 수립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딜로이트의 지속가능성 행동 보고서(22.12)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경영진(96%)은 다음 보고주기에 외부인증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경영진 중 약 3분의 1(37%)만이 자사에서 COSO 프레임워크를 지속 가능성 보고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인증을 위한 방향성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17 (월)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 ▶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입된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되어 옴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외부감사인에 제출

- ▶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 정착되고 있으나,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 ▶ 주요 개정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현행	개정 가이드라인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통보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 포함함 •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함 *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외감규정§27⑦4)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함 * 예시: ①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중속회사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③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 포함사항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17 (월) 금융감독원

은행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 출범

-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여 킥오프 미팅을 실시함
 -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를 ‘23~’24년 은행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 주요내용은 ①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②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 마련·확산 유도, ③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임
- ▶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 운영

구분	주요 내용
TF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
향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사외이사 지원체계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 논의 예정 • 금년 하반기 중 T/F 최종안을 확정·발표 예정
주요 T/F 논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 정비 •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승계절차 마련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및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 마련 •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집합적 정합성 확보 방안 및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 사외이사 평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상당한 주의’ 판단시 고려사항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 지배구조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14(금)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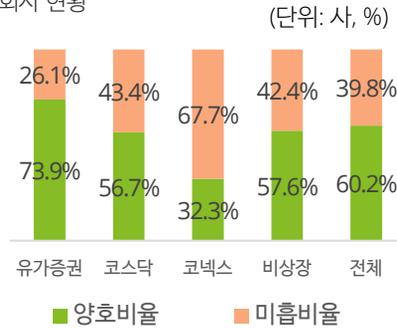
2022년 중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안내

- ▶ 금융감독원은 '22년 사업보고서(12월 결산)를 대상으로 재무사항 14개와 비재무사항 5개 항목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함
- ▶ 재무사항 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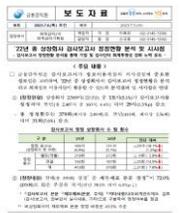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총 2,919사*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함
 * 주권상장법인 2,459사(유가 747사, 코스닥 1,582사, 코넥스 130사) 및 비상장법인 460사

〈표1〉 시장별 미흡회사 현황

구분	유가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전체
점검대상	747	1,582	130	460	2,919
양호회사	552	897	42	265	1,756
미흡회사	195	685	88	195	1,163
미흡비율	26.1	43.3	67.7	42.4	39.8



다운로드



QR 코드



- 주요 미흡항목은 ① 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14.1%), ② 회계감사인의 변경(9.7%), ③ 재고자산 현황(7.6%) 순으로 나타남
- 종합 결과, 미흡비율은 전년(990사, 36.4%) 대비 3.4%p 상승함

▶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이하 'MD&A') 공시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상장법인 120사(유가 60, 코스닥 60)를 선정함

〈표2〉 평가 결과

(단위: %, 점)

구간	평가					합계	평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전체 (비중)	8 (7%)	17 (14%)	52 (43%)	40 (33%)	3 (3%)	120 (100%)	49.3
유가	7	16	25	12	0	60	57.6
코스닥	1	1	27	28	3	60	40.9

〈표3〉 규모별 평가 결과

(단위: 사, 점)

구간	평가					합계	평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조이상	4	5	10	4		23	59.0
5조미만	2	6	14	4		26	57.2
3조미만	2	5	17	15		39	48.1
1조미만		1	11	17	3	32	37.4
합계	8	17	52	40	3	120	49.3

- ▶ 향후 재무제표 표본심사 대상 선정을 위한 위험요소 중 하나로 강조사항 미흡회사를 추가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12 (수)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가상자산 공시' 공개초안 발표

- ▶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의 별도 기준 제정 가능성은 낮음
- ▶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3.6.30)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관련 공시요구사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함*

* '23년 7월 7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개초안 의결

▶ 개정 내용

-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다음의 공시 요구사항을 신설함

구분	내용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에 대해 그 분류를 포함한 보유관련 회계정책,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공시
개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량, 특성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하여, 수익인식 등 관련 회계정책과 진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등을 공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시장가치, 보관방법 등을 공시

▶ 회계기준원 향후계획

- 올해 8월 14일까지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하반기 최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안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12 (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 ▶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발표함(7.11)
- ▶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측면에서 법률적 소유권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국제동향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미온적임
-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 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됨

<표1>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구분	회계처리 감독지침	주석공시 의무화
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목적이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 •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원가는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및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정책과 회사의 판단까지 기재토록 의무화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큰증권은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 기재토록 의무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 결정하되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고려 •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사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부채 인식 여부에 관계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 공시 의무화 •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 ▶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 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어 회사와 외부감사인간의 해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 앞으로 2개월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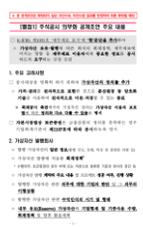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1



별첨 2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6 (목) 금융감독원

'22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22년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을 분석하여 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함

- (정정현황) 상장회사 2,569사('22년말) 중 131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전년(총 2,487사 중 160사, 6.4%) 대비 29사(1.3%p) 감소

<표1>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사 수 및 횟수

구분	'21년	'22년	전년 대비	
정정 회사 수 (상장회사 중 비중)	160사 (6.4%)	131사 (5.1%)	△ 29사(18.1% ↓) (1.3%p ↓)	
정정 횟수	별도(개별)	218회	212회	△ 6회(2.8% ↓)
	연결	192회	167회	△ 25회(13.0% ↓)
	계	410회	379회	△ 31회(7.6% ↓)

- (정정내용) 전체(총 379회)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2.0%(273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함(전년 78.0% 대비 6.0%p ↓)

<표2>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사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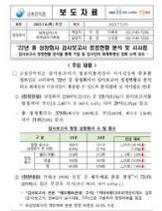
* 재무제표 정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재무제표 및 주식 정정이 같이 있는 경우는 모두 재무제표 정정으로 분류

- (시사점)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하였다가 '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됨

* ('19년) 242회→('20년) 305회(26.0%↑)→('21년) 410회(34.4%↑)→('22년) 379회(7.6% ↓)

▶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은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엄정조치 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5 (수) 금융감독원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1.6월) 이후 세번째* 지정으로, 7개 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 집단법')에 따른 지정요건** 을 모두 충족함
 - *'21년: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22년: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 **①여수산·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②금융위 인허가 등록 회사 1개 이상, ③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다만, ④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대표금융회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마련·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 •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추가 위험평가 및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자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 $\text{자본적정성 비율} = \frac{\text{통합 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text{통합 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자산자본)}} \geq 100\%$
위험관리실태평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

-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5 (수) 금융감독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5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대환대출 인프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규 인가, 은행권 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임
 - 개선방안을 신속 추진하면서 은행권 경쟁촉진 관련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임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의 6가지 주요과제 중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은 지배구조 관련 과제임

구분	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며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은행권이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 성과급·배당을 지급함에 따라 비판 확산 •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이연지급 및 성과급 환수 조정 등이 외국에 비해 축소된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할 뿐, 개별 임원별 보수지급액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도 부족함 * 지배구조법상 최소 기준(3년, 40%이상)을 맞추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일부 금융기관은 성과보수 유보제도도 부재 • 직원의 특별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투명성·정보접근성이 제한됨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임원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은행 수익 형성 및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구분	내용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지급 확대, 금융사의 성과급 조정·환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내 개정 추진 예정 •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토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은행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 • 특히,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3분기 시범 작성 공개 예정, 차년도 4월부터 본격 시행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26 (월) 한국회계기준원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26일,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기준서(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함
- ▶ ISSB는 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함

구분	내용
IFRS S1	• 기업이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
IFRS S2	•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

- ▶ ISSB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에 해당함
 -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기업 및 투자자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됨
 - IFRS 회계기준의 핵심개념을 기반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됨
- ▶ 향후 계획

구분	내용
I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이행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 TIG) 및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창설을 시작으로,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ISSB 기준의 도입을 지원할 예정 • 다중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ISSB 기준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준선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추구하는 국가와 GRI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
회계기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IFRS S1, S2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발표할 계획 • 기업들의 IFRS S1, S2 이행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1. IFRS S1



별첨2. IFRS S2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22 (목)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6.22)
-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 스스로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관심 및 책임 제고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 특정,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을 방지하는 원칙 구현 ✓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함 ✓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 부여 •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 구체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도모 • 기존 기준 마련의무에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 • 임원 스스로 내부통제의 충실 수행 유도하며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로 지배구조 견제와 균형의 원리 회복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예정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장)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금융감독원장) 제도개선이 잘 정착되도록 모범사례를 발굴, 금융업권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 • (금융협회장) 입법과정에서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20 (화) 기획재정부

'23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4개국 중 28위 기록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함(6.20)

- 한국은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여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함
- 국가경쟁력 평가 4대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33위를 기록함

다운로드



<표1>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 순위	27위	28위	23위	23위	27위	28위
- 기업효율성 분야	43위	34위	28위	27위	33위	33위
- 경제성과 분야	20위	27위	27위	18위	22위	14위
- 정부효율성 분야	29위	31위	28위	34위	36위	38위
- 인프라 분야	18위	20위	16위	17위	16위	16위

QR 코드



▶ '기업효율성'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인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은 하락하였으나, '경영관행'(38→35위), '노동시장'(42→39위) 및 '태도·가치'(23→18위) 순위는 상승함

<표2> 기업효율성 분야 주요 평가항목 순위

구분	경영관행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태도·가치
'18년	55	39	53	33	30
'19년	47	38	36	34	25
'20년	36	38	28	34	15
'21년	30	31	37	23	21
'22년	38	36	42	23	23
'23년	35	41	39	36	18

▶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함

- 기업 설문 비중이 높은 기업관련 부문(경영관행, 태도·가치)에서도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반영됨
- 3대 구조개혁(노동·고용·연금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5 (목) 금융위원회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대해 논의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안)에 대해 논의함
 -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쉽고 자세한 경영현황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구성안

구성	세부항목
은행 개요	• 은행 기본정보(총자산, 영업점 및 직원 수 등)
자산 / 부채	• 대출채권 구성 / 유가증권 구성 / 예수금 구성 / 차입금 및 사채 구성
수익 / 비용	•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 수수료이익 / • 임직원 급여(성과급, 희망퇴직금 등 포함) / 사회공헌 실적 / 총당금
당기순이익 활용	• 자본적립 현황 / 배당현황

- ▶ 금년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구성을 확정하여 매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공개할 예정임
- ▶ 금년 하반기 중 '22년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할 계획*이며,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은행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22년 경영 현황 → '23년 하반기 작성 / '23년 이후 경영 현황 →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
- ▶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 등을 상세히 공시함으로써 성과급과 배당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장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4 (수) 금융감독원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오류사례를 사전 예고함

➢ 2024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1.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대상업종) 쏨업종 (건설업, 조선업 제외)
- (선정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금융상품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였는지 점검함

2. 전환사채(CB) 콜옵션

- (대상업종) 쏨업종
- (선정기준)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

3.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대상업종)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 (선정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유의할 필요

4. 우발부채 공시

- (대상업종) 쏨업종
- (선정기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 고려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2023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예정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3 (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자본시장연구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 지난 6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실제 기업 내 횡령·배임의 통제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함
-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함

- ‘19년부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상향되었으나, 최근 횡령 사건 발생 등의 내부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절차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 제도에 비해 강화된 체계임
-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 횡령·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효과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는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해관계자 간에 존재하였으나, 최근 횡령 및 배임 등 내부통제 절차의 근본적 위반 사례의 발생 등으로 인해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가중됨
- ‘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 및 배임 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됨을 확인함

<표1>2019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상향의 효과성

구분	횡령·배임 발생확률에 미친 영향	부정 금액에 미친 영향
횡령	0.84%p 감소	평균적으로 1,986만원 감소
배임	1.04%p 감소	

-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부담이 급증해 온 영향도 확인된 바, 실효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6.12 (월)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함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회계학회 공청회,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마련

➢ 회계제도 보완방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 ('24→'2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금년부터 도입하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 면제 중소 비상장사(자산 1천억~5천억)가 신규 상장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3년 유예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직권지정사유를 정비 (現 27개 중 16개 사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 *①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주기적 지정제는 당분간 현대대로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 예정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4명→2명),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 감사인의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함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전까지 판단기준을 연결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 1년 ~ 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은 다음연도 지정 시 지정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 패널티 부과 예정

➢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

다운로드



별첨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24 (수)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스 제정

➤ 지난 5월 24일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함*

* 정책 세미나(4.13), 제2차 ESG 금융 추진단 회의(4.27),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5.24)에서의 논의를 종합 반영하여 마련

-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스'(이하 '가이드선스')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임
 -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임
 -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드선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하며,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함

➤ 가이드선스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총칙	• 동 가이드선스의 목적과 적용 방식 등을 규율
2.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 준법 감시인의 지정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 마련을 요구
3.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함
4. 평가체계의 공개	• ESG 평가방법론 및 기업별 ESG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를 공개 요구 • 정보공개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
5. 이해상충의 관리	•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하고,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 •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도 부여
6.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 •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를 규율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드선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드선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임
- 약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3~'24년간 가이드선스를 운영한 이후, '25년부터는 가이드선스의 역할·활용도 및 국제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05.23 (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 5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추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함
 -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
- 기관별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는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음 •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역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 예정
2.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가능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보 중심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함 •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포착을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예정
3. 최근 추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D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중임 • 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함
4. 최근 불공정 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 감소의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가 있음 •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하여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함

다운로드



QR 코드



-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22 (금) 금융감독원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 ▶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에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할 예정임
 - 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일시·장소	'23.6.1.(목) 14:00 ~ 17:00,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 4층)
주요내용	① 금융감독원의 XBRL 공시제도 추진 경과 ② 한국 XBRL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③ 미국·일본의 XBRL 도입 성공 사례 등
주요 참석자	금융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XBRL본부 사무총장, 국제 XBRL협회 CEO 및 Vice-Chair 등
신청방법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배너를 통해 참석 신청

- ▶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XBRL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그간의 금융감독원 재무공시 선진화 주요 내용

내용
① '07년 세계 최초로 XBRL 재무제표 작성 도입 (일본 '08년, 미국 '09년, 유럽 '20년)
② '11년 IFRS 시행에 맞춰 IFRS 기반 Taxonomy로 변경
③ '20년 Open Dart를 통해 XBRL 재무정보 및 주요 비재무정보 전면 공개
④ 기업 편의를 위해 금융감독국이 XBRL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23년 상반기 배포 예정, 미국 등은 상용 프로그램 구입 필요)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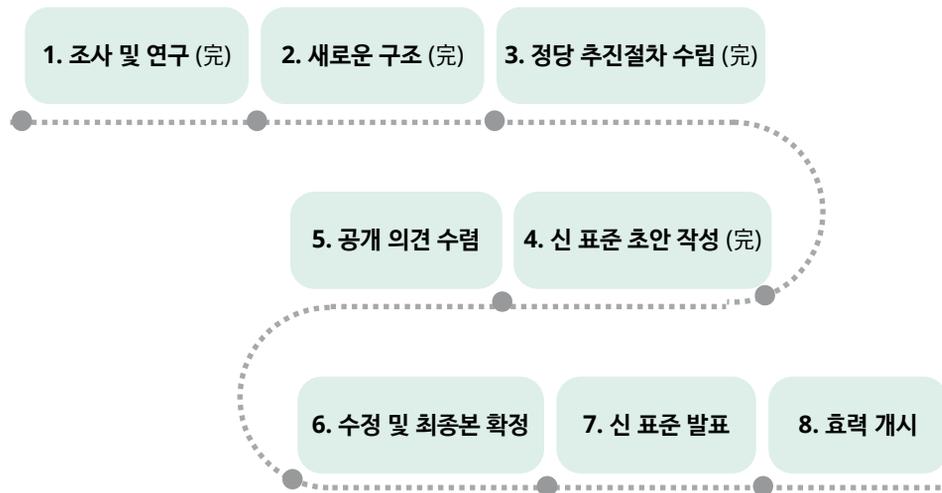
2023.5.22 (금) 한국감사협회

국제내부감사표준 개편 초안 공개 및 의견조사 기간 연장

- ▶ 세계내부감사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이하 'IIA')는 국제내부감사표준(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개편을 위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사를 실시중이며, 한국 내부감사인 의견조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조사기간을 연장함(6월 26일까지)
- IIA는 지난 몇 년간 국제내부감사표준위원회(International Internal Audit Standards Board)의 내부감사 전문 체계와 표준 변경에 관하여 내부감사 분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공하고 진행과정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구분	내용
개정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PF 구조의 단순화 • 구성요소의 정렬과 명확화 • 시의성 증진과 새롭게 떠오르는 감사주제에 대응 • (규모, 산업, 성숙도에 관계없이) 실용성과 적용가능성 보장 • 내부감사,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 추진 일정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19 (금) 한국ESG기준원

2023년 ESG 평가대상기업 안내

- ▶ 한국ESG기준원은 2023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금융사지배구조) 평가대상기업을 공개함
- ▶ 2023년도 평가대상기업은 2022년 대비 9사 늘어난 총 1,049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91사, 코스닥 상장사 196사, 비상장사(금융사) 62사로 구성됨
 - 환경·사회 평가는 상장사 987사(유가 791사, 코스닥 196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 지배구조 평가는 일반 상장사 932사(유가 745사, 코스닥 187사) 및 금융사 117사(상장 55사, 비상장 62사)를 대상으로 각각의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실시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표1> 2023년 ESG 평가대상기업

(단위: 사)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계
일반상장사	745	187	0	932
금융사	46	9	62	117
계	791	196	62	1,049

* 평가대상 연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기업, 상장 폐지된 기업, 특수목적 법인(SPC) 등은 2023년도 평가대상기업에서 제외

<표2> 2022년 ESG 평가대상기업

(단위: 사)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계
일반상장사	730	196	-	926
금융사	47	9	58	114
계	777	205	58	1,040

- ▶ 2023년도 ESG 평가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

구분	내용
평가기간	• 4월 1주 ~ 9월 4주
환경 및 사회 피드백 일정	• 제출가이드 공개: 5월 19일 • 기업 피드백: [기본] 6월 12일 ~ 6월 30일 / [심화] 8월 14일 ~ 8월 25일
지배구조(금융사 포함) 피드백 일정	• 제출가이드 공개: 피드백시 함께 공개 • 기업 피드백: [기본 1차] 6월 28일 ~ 7월 7일 / [기본 2차/심화] 7월 17일 ~ 7월 21일
최종 등급 발표	• 10월 2주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 11월 중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16 (화) 한국회계기준원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5월 11일, SASB 기준의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공개초안*을 발표함

*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 ▶ 공개초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다른 관할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관할권(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국제 적용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성 존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공개초안의 적용범위는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에 한정** *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 **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론을 제안(단계적으로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②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③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④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 ⑤ 본래 의도와 일치하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로 대체

다운로드



QR 코드



- ▶ 향후 일정

구분	내용
I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올해 8월 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의견조회기간: 90일) • ISSB는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IFRS S1 시행일 전에 이와 관련된 SASB 개정을 완료하고자 함
한국 회계기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을 검토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ISSB에 국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 주요내용 요약 공개(23.5월 중) ✓ 기업·투자자 등 국내 이해관계자, KSSB 자문위 등과 국내 의견 논의 (23년.5월~7월)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부회장이라도 경영 지배하면 총수... 동일인 판단 기준 명문화 [연합뉴스]
- 대기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살펴보니 ... 절반이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명시 안해 [워크투데이]
- 금융당국,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허용 유력...관건은 지배구조 요건 충족 [시사저널e]
- 우리금융이 꼽은 ESG경영 핵심이슈는.. '환경'보다는 '사회·지배구조' [한국정경신문]
- 日,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지속가능성 위주 새 주가지수 발표 [ESG 경제]
- 환경부, 지속가능경영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과정 운영 [메트로신문]
-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만든다... TF 첫 회의 개최 [뉴스1]
-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342개...절반이 소유·지배구조 [아시아경제]
- 국민연금, 2년짜리 지배구조 개선위 만든다 [연합인포맥스]
- 국내 기업, 지배구조 대체로 개선... '이것'은 부족했다 [파이낸셜뉴스]
- ESG공시 앞두고 기업 분주한 움직임... 핵심은 '거버넌스' [데일리임팩트]
- 내부통제 핵심은 리스크관리... 올바른 문화 정립 필수 [아시아경제]
- 한국 딜로이트, 내달 4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조세일보]
-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발표... 정부참여 자율규제 [머니투데이]



이사회·감사위원회

- 유리천장 이사회... ESG경영 옥에 티? [딜사이트]
- 금융사 임원 책무 배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사회 책임도 명확해진다 [노컷뉴스]
- 지난해 자사주 소각 상장사 42곳... 이사회 여성 참여 37% [서울경제]
- 사모펀드 부실판매 잇따라... 임원·이사회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서울경제]
- ESG위원회 위상 강화 KCC글라스, 리스크관리도 이사회 중심 [더벨]
- 이사회회장도 내부통제 책무...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뉴데일리경제]
- KT 새 사외이사 7인 선임...경영 정상화 본격 착수 [연합뉴스]
- 백화점 3사, 이사회 의장·대표 겸직...분리 지적 [EBN산업경제]
- ESG 공시의무 확대... 감사위원회 감독 중요해질 것 [파이낸셜뉴스]
- 금융사 임원 책무 배분한 책무구조도 도입... 이사회 책임도 명확해진다 [노컷뉴스]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3일 '2023년 제2회 정기포럼' 개최 [헤럴드경제]
- 주가 발목 잡는 지배구조... 이사회 중심 개선이 핵심 [CEO스코어데일리]
- 감사위원회, 인적구성 다양성과 전문성 보완 필요 [조세일보]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딜로이트, 직장 여성 경력 만족도 조사 보고서 발간 [매일경제]
- 한국딜로이트그룹, 지속가능공시 기업 대응 방안 제시 [헤럴드경제]
- 딜로이트 AP CEO, 캠퍼스 채용 설명회 참석... "성장 기회 제공" [머니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MZ세대 스트리밍 비디오 이탈 시작...개인 맞춤형 영상 선호" [조선비즈]
- 딜로이트안진, 니치마켓 바이오·헬스케어 자문시장 정조준 [더벨]
- AI 물결 탄 회계감사...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파이낸셜뉴스]
- 딜로이트, 2050년 청정수소 시장규모 1조4000억달러 전망 [전기신문]
- 내부통제 더 중요해진 금융권... 실무진 잘못이라도 임원 책임 묻는다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그룹, 제1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서울경제]
- 딜로이트 안진, '1조' ICT 클러스터 재무자문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 한국딜로이트그룹, "2050년 전체 수소의 85%는 그린수소" [모빌리티뉴스]
-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XBRL 재무공시 유의사항 설명회 성료 [머니투데이]
- 딜로이트안진 'ESG 공시·인증 연구 TF' 발족... "시장 선도할 것" [서울경제]
- 딜로이트 컨설팅-BSI 코리아, '믿을 수 있는 AI' 컨설팅 및 인증서비스 제공...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시장 형성 가속화 [인공지능신문]
- 금융 '공공성의 적'된 디지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와치]



회계투명성

- 한중수회계학회장 "재무제표에 직접 영향 주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은 준비 서둘러야" [조선비즈]
- 상장사들 빈번한 감사보고서 정정... 횡수 줄곤 있지만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
- 회계조작 논란에 보험사들 화들짝... 전진법 적용 가닥 [연합뉴스]
- 공인회계사회,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모형 세미나 12일 개최 [뉴스1]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인다 [부산일보]
- 공인회계사회회장 "회계개혁 완화, 자본시장에 부정적 신호 우려" [연합뉴스]
- 규제 완화로 회계 투명성 후퇴... 정부 조치에 전문가들 연일 쓴소리 [뉴스1]
- 민간단체 회계보고서 제출, '10억 사업자 → 3억' 강화 추진 [문화일보]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달 4일 '제4회 ESG 인증 포럼' 개최 [이데일리]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감 도입 2029년으로 유예 [뉴시스]
- 너댓 곳 불과했는데...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 '비적정' 상장사 39곳 [파이낸셜뉴스]
- 당국·회계업계 초미의 관심사 XBRL, 그게 뭔데? [파이낸셜뉴스]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방지

- 급증하는 회계감리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일경제]
- 끊이지 않는 농협 직원들의 횡령, 이유는? [시사저널]
-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72건...15억 환수 [뉴시스]
- 서산시,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충청일보]
- 기재부,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 7500여건 점검 나선다 [뉴시스]
- 회계업계 '시기술 적용 확대' 감사방식 변화 예고 [내일신문]
- 재계 무방비로 ESG 공시 의무화 압박... 금융위는 규제 완장 차기 급급 [여성경제신문]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 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이투데이]
- 금감원, 보험사 회계상 이익 착시 논란 새 회계기준 세부 지침 마련 [KBS뉴스]
- 新 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대상과 규모의 확대 [법률신문]
- 거래소 'CFD 특별점검단 가동'... 추가 주가조작 세력 적발 착수 [시사저널]
- 칼 빠른 가상자산 규제... 신뢰 회복 최대 숙제 [메트로신문]



규제 동향

- 금융 당국, 회계제도 보완... 기업 부담 완화 초점 [한스경제]
- 보험사 IFRS17 회계조작 우려... '소급법' 에 실적 부풀릴 판 [아시아타임즈]
- 회계법인 빅4 전체 감사보수 총액 5년간 연평균 18% 상승 [아시아경제]
- 자본연·공인회계사회,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조선비즈]
- 금감원, 연내 가상자산 담당조직 확대·개편 [매일경제]
- 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투자자 보호 해결시까지 중점 심사 [연합뉴스]
- 금감원, 1.2조 주담대 작업대출 저축은행 5곳 무더기 제재 [뉴시스]
-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 공개... 내년 적용 예정 [조선비즈]
- 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열 곳 중 네 곳 미흡" [뉴데일리경제]
- 보험사 IFRS17 실손 가정 가이드라인 3분기부터 적용 [더벨]
-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조선비즈]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 → 100억 상향 [서울파이낸스]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

- 국내외 M&A 시장 위축...전년보다 40% 이상 감소 [뉴시스]
- 대한상의 SGI "첨단기술 경쟁력, M&A로 끌어올려야" [머니투데이]
- 항공산업 재편 지금부터... 생존형 M&A 날개 달까 [헤럴드경제]
- M&A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지주사 CVC 출자요건 완화 [한국경제]
- 금융당국 저축은행 M&A 허용... 7월 중순에 규제 완화 발표 [뉴스웍스]
- 상반기 M&A 25.2조... 벌써 작년 총액 육박 [이데일리]
- 공정위, M&A 신고 의무 완화...PEF 설립·일부 임원 겸임 등 면제 [파이낸셜뉴스]
- ESG 신사업 잠재력 높아... M&A 등 적극 투자 필요 [뉴시스]
- 스타트업 M&A 활성화 위해선 전략적 투자자 목소리 들어야 [머니투데이]
- 공정위, M&A 신고 의무 완화... PEF 설립·일부 임원 겸임 등 면제 [파이낸셜뉴스]
- M&A 때 같은 가격에 사줘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도입 초읽기... 대상 기업은? [조선비즈]
- 연이은 금리 동결에 인수금융 7~8%서 안정화... M&A 본격화 조짐 [연합인포맥스]
- 제약바이오기업 성장전략 우선순위 'M&A' [의학신문]
- 주목받는 '디지털헬스케어'... 업계는 M&A로 재편중 [뉴스핌]

IV. FAQ

1.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관련 책무구조도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누가 마련해야 하나요? 업권별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하였으나('16년~)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됨
- ▶ 금번 개선 세부방안 중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통해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무를 지정하여 임원의 직책별로 책임영역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임내용(책무)을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임

대상	• 지배구조법 상 임원(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 등, 통상 C-레벨)
책무	•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
배분	•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을 지정

<그림1> 책무구조도의 개념도



-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마련해야 하며 책무구조도상 CEO 책무에 '책무구조도 작성'이 포함될 예정임
 -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에 대한 거짓작성에 대해 책임이 있음

1단계	• 은행·금융지주 (공포 후 1년 이후)
2단계	•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3단계	• 일부 지배구조 규율이 미적용*되는 중소형 금융회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소수주주권 행사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06

** 동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변경되어 입법화될 수 있음

IV. FAQ

2. 회계연도 중 중요한 기업결합을 수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인수(합병)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 사업연도 중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 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해야 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54)

- ①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 ②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 ③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 회사가 ①, ③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55)

운영실태보고서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합병) 또는 폐지 사업부분이 당해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및 그 사유 •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	---

- 인수(합병) 또는 폐지 사업부분에 대한 평가의 제외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54)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2021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022

IV. 주요 행사

[글로벌 서베이] Talent Frontier: 이사회가 인력의 미래를 형성하는 방법

- ▶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는 이사회와 관련한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 글로벌 권역의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 및 집무 현장에서 '인재와 인력'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함
- ▶ 현재 이사회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인재와 인력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임

이곳을 클릭하시면 서베이 링크로 연결 됩니다. (국문 문항 제공)
(2023년 7월 21일 마감, 약 10분 소요)

서베이

▶ 참여하기

QR 코드



웨비나

▶ 신청하기

QR 코드



구분	상세
마감일	• 2023년 7월 21일 (금)
대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 C레벨 경영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미래는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직원의 예상 기대 사항, 비용 통제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압박 등 변화의 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산업 및 권역별로 걸쳐 발생하고 있음. 해당 변화에 따라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며, 기업을 리드하는 이사회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함

- ▶ '23년 10월 17일에 웨비나를 통해 결과가 공유되며, 보고서는 이어 발간될 예정임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10월 18일 (수)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an-Christophe Deslarzes (Adecco Group 및 Constellium 회장) • Michael Fraccaro (Mastercard Inc 인사총괄책임자) 외 2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용한 퇴사와 대량 퇴사와 같은 최근 회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력 이슈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 예정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년 제1회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07:30 ~ 10:00		
장소	서울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22F)		
프로그램	사회: 김학범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05	환영사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8:05 ~ 8:35	세션1.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 ESG 감독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 ESG센터장
	8:35 ~ 9:05	세션2.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박재환 중앙대 교수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9:05 ~ 9:15	Break Time	
	9:15 ~ 9:45	세션3.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
	9:45 ~ 9:55	Q&A	연사 3인
9:55 ~ 10:00	맺음말		

👉 다시보기

QR 코드



- 금번 세미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젠다로 구성되어 총 3개의 세션을 선보임

환영사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음
- 향후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회계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IV. 주요 행사

(계속)

Session 1.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 ESG 감독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 ESG 센터장

- ▶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전환 가속화와 ESG 공시 의무 확대 흐름에 따라 ESG 리스크 및 공시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 ESG 공시·인증은 EU나 미국 SEC, IFRS재단 등에서 요구하는 공시조건들이 상이하고, 대상기업이나 공시 범위, 적용시기 등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임
- ▶ 선제적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가이드언스를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함

Session 2.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 최근 법률과 제도 및 각종 규정 그리고 환경과 공정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내부통제 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함
- ▶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사라면 준법지원인을 의무 선임해야 되지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비금융사의) 약 60% 정도의 기업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어 준법지원인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상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표시되면 코스닥 종목의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되고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에는 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당국의 계도기간 종료후에는 향후 회계처리 위반 제재(회사 및 임직원 가중 제재)를 받게 되어 사외이사는 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담보하는지 면밀하게 감독해야 함

Session 3.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 글로벌 이사회회의 주요 아젠다,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임기 규정, 인적자본 감독 현황, ESG 이사회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임원배상책임보험, 사외이사 보수 등 국내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동향을 살펴봄
-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5가지 감독영역별 감독 포인트, 전문성, 중시되는 교육 주제 등 국내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동향을 설명함
-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지배기구 선진화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상세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과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